

일본 전자공업 생산 3년만에 회복

2003년 생산 19조엔으로 5.8% 증가 ... 디지털 가전제품 호조 힘입어

2003년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이 디지털 가전제품 호조에 힘입어 3년만에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04년에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및 아테네 올림픽 특수로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2003년 전자공업 생산이 3년만에 회복세로 돌아서 전년대비 5.8% 증가한 19조800억엔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전망

(단위: 100만엔, %)

구 분	2003		2004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영상기기	1,939,000	22.9	2,275,000	17.3
TV 수신기	408,000	20.3	604,000	48.0
DVD 비디오	120,000	40.3	162,000	35.0
디지털 카메라	611,000	40.1	684,000	11.9
자동차 위치추적 시스템	344,000	30.0	396,000	15.1
음향기기	333,600	▽16.7	258,000	▽22.7
민생용 전자기기	2,272,600	14.9	2,533,000	11.5
통신기기	3,374,500	13.7	3,505,030	3.9
유선통신기기	671,270	▽15.1	676,280	0.7
무선통신기기	2,703,230	24.2	2,828,750	4.6
자동차·휴대전화	1,877,960	33.0	1,971,860	5.0
전자계산기 및 관련장치	2,577,585	▽12.6	2,538,604	▽1.5
본체	1,497,940	▽14.5	1,468,040	▽2.0
컴퓨터	1,090,000	▽12.9	1,080,000	▽0.9
관련장치	1,079,645	▽9.9	1,070,564	▽0.8
전자응용장치	804,940	11.3	820,930	2.0
전기계측기	456,820	4.8	487,000	6.6
사무용 기계	389,250	▽8.5	373,320	▽4.1
산업용 전자기기	7,603,095	1.3	7,724,884	1.6
전자부품	2,958,720	1.2	3,040,096	2.8
수동부품	856,584	▽0.3	870,576	1.6
접속부품	809,370	4.3	836,600	3.4
전자회로 기판	795,058	2.5	831,080	4.5
변환부품	101,400	▽13.8	93,110	▽8.2
기타	396,308	0.5	408,730	3.1
전자기기	6,247,904	11.0	7,015,721	12.3
전자관	356,840	16.4	420,871	17.9
반도체소자	950,298	7.3	1,036,401	9.1
집적회로	3,420,105	7.6	3,902,726	14.1
반도체 집적회로	3,153,707	8.3	3,617,148	14.7
혼성집적회로	266,398	0.2	285,578	7.2
액정기기	1,520,661	20.7	1,655,723	8.9
전자부품·기기	9,206,624	7.6	10,055,817	9.2
전자공업 합계	19,082,319	5.8	20,313,701	6.5

자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휴대폰이나 DVD 레코더, 초박형 TV 등 디지털 가전이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전자부품·기기가 호조를 보여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됐기 때문이다.

JEITA는 2004년에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나 아테네 올림픽 효과에 힘입어 활황이 지속돼 2003년을 상회하는 20조3100억엔으로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3년 전자공업 생산은 연초에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DVD 레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위치추적 시스템 등 민생용 전자기기의 호조로 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용 전자기기는 호황을 누림에 따라 2003년 14.9% 증가한 2조2700억엔으로 2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디지털 가전의 호조로 상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전자부품·기기 가운데 집적회로, 반도체, 액정기기가 하반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 전자부품·기기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9조2000억엔을 기록했다.

주력부문인 산업용 전자기기는 무선통신 기기가 24%, 카메라가 달린 다기능 휴대폰이 33% 증가함으로써 대형 컴퓨터나 퍼스널 컴퓨터 침체를 커버해 7조6000억엔으로 1.3% 증가했다.

2004년에도 민간용 전자기기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 아테네 올림픽 효과에 힘입어 2년 연속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가전의 호황으로 전자부품·기기도 2003년을 웃도는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산업용 전자기기는 완만한 속도이지만 꾸준히 신장할 것으로 보여 2004년 일본의 전자공업 생산은 20조엔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4/04/23>